



‘사우나 성폭행’ 피해자 에이즈 감염 확인

울산의 대중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 신원 마상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30대 남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울산시 남구보건소는 최근 에이즈 감염 의심자인 김모(31·울산 남구)씨에 대한 국립보건원 혈액 검사결과, 김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는 “김씨가 4월 울산의 한 대중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비뇨기과를 찾았고 비뇨기과에서 서울 가검물센터에 의뢰해 검사를 한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며 “김씨는 이 남자에게서 에이즈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중사우나 수면실이 에이즈 감염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김씨를 성폭행한 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3-06-20]

에이즈환자에 첫 치료감호 선고, 관련시설 전혀 없어

법원이 절도혐의로 구속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게 치료감호 선고를 내렸으나 국내 치료감호소에는 에이즈 치료시설이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8일 절도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해 “에이즈로 인한 정신장애 증세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선고를 내렸다.

치료감호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정신병자이거나 마약중독자 등일 경우 치료를 우선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이나 마약·알코올 중독자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률상 하자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지금껏 에이즈 환자는 물론, 법정전염병 환자가 한 번도 수감된 적이 없을 뿐더러 에이즈를 치료할

만한 시설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감호소 관계자는 “전례도 없고 마땅히 치료할 방법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박씨의 변호인측도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며 “에이즈가 정신분열증의 근본적 원인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보다 에이즈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에이즈 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치료감호소에 보내질 경우 병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2003-06-18]

英佛, 에이즈퇴치 年 10억弗 지출 EU에 촉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EU)에 에이즈 퇴치를 위해 매년 10억 달러를 지출하라고 16일 촉구했다.

이같은 촉구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카리브 국가 등 세계 10여개 국에서 에이즈와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달러를 지출하는 법안에 서명한 후 3주만에 나온 것이다.

부시가 서명하지 1주일 후 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EU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 매년 10억 달러를 지출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06-17]

‘에이즈 바이러스 阿원숭이가 원조’ 美-英-佛연구팀 보고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의 원조는 아프리카 원숭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로, 이것이 하나로 섞이면서 침팬지와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틀레인 국립영장류연구소, 앨라배마대, 영국 노팅엄대,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등 3개국 국제 연구팀은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붉은머리 망가베이 원숭이’와 ‘큰 얼룩코 원숭이’에서 발견되는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합쳐져 현재 아프리카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형태의 유인원 면역 결핍 바



이러스(SIV)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SIV는 SIV를 가진 침팬지 고기를 먹거나 침팬지 혈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전파돼 HIV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제까지 'HIV-1'이 침팬지의 SIV에서 왔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침팬지가 어떻게 SIV를 갖게 됐는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앨라배마대 바이러스학자 프레데릭 비볼렛 러치 박사는 "이 원숭이 바이러스가 침팬지 몸에서 합쳐져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사람에게 전파되었으며 그 시기는 1930년 이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IV-1과 달리 'HIV-2'는 서아프리카의 망가베이 원숭이로부터 침팬지를 거쳐지 않고 직접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사람에게 발병하는 에이즈 바이러스는 대부분 HIV-1이다. [동아일보 2003-06-13]

여수 '에이즈 괴담' 은 해프닝

전남 여수지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검사 소동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으나 양성반응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시 보건소는 7일 "지난해 6월초 에이즈 환자인 구모씨가 여수역 앞 여관에서 1년 6개월간 윤락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5621명의 시민들이 에이즈 항체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양성반응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98년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구씨는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루 5~10명의 남성을 상대했는데 구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중 절반 이상이 콘돔 착용을 거부해 수백명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수경찰서 역전파출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수역 일대 윤락가를 출입하는 남성 중 80%가량이 배를 타고 입항한 선원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주고객이 여수시민이 아닌 만큼 이번 검사결과로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화일보 2003-06-07]

중·고 보건교사에 에이즈 예방교육

국립보건원은 7월부터 두달간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중·고교 보건교사 2,400여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주관 하에 에이즈예방교육을 일제히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에이즈의 증상과 예방법, 최근의 각국 동향, 감염인과의 대화, 교육자료시청 및 토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건원 관계자는 "성관계를 통한 10대의 에이즈 감염이 90년대까지는 연간 한 두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각각 5건씩 나오는 등 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도 방지해서는 안될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3-06-01]

부시, 에이즈퇴치에 150억달러 지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향후 5년간 150억달러의 에이즈지원계획 법안에 서명했다. 에이즈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짐바와 등 아프리카 12개국과 하티티 등 카리브지역 2개국의 200만 에이즈 감염자들이 에이즈치료제 혜택을 받고 말기 환자와 에이즈 고아 약 1300만명이 인간다운 호스피스케어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시대통령은 27일 국무부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 이 계획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유럽 재건사업인 마셜플랜 등에 비유하면서 "미국에서는 에이즈치료제 개발로 수명연장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비해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인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도덕적 의무감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0년내 700만 신규 에이즈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 계획은 임신부의 에이즈검사, 콘돔사용 등 에이즈 예방 교육 등에 사용된다.

에이즈사망자는 2000만명, 감염자는 4200만명에 이른다. 에이즈로 인해 사하라이남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47세로 감소했고 감염자의 60%가 여성이며 15세 이하 감염자가 300만명, 에이즈고아가 1100만명에 이른다.

하루 지원이 늦어질 때마다 아프리카에서만 매일

8000명씩 죽어가고 1만 4000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다.

[문화일보 2003-05-28]

“팩터Ⅷ, 국내 판매된 적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적인 제약사인 독일의 바이엘사가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는 혈우병 치료제 ‘팩터Ⅷ(에잇)’을 아시아에 대량 판매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문제의 약이 국내에 수입돼 판매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지난 84년 바이엘의 한 자회사가 자사 팩터에잇이라는 혈액응고제가 에이즈 감염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미국과 유럽지역에는 이 약의 공급을 중단했지만, 일본 등 아시아에는 1년쯤 계속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이 약을 사용한 홍콩과 대만의 혈우병 환자 100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돼 이들 중 상당수가 숨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3-05-23]

“에이즈에 끄덕없는 사람 우간다에”

일부 아프리카인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성을 갖고 있는 사실이 새로 밝혀져 에이즈 백신의 조기 개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간다 바이러스 연구소는 최근 빅토리아호 근처에 사는 우간다인 28명이 감염예방기구 없이 에이즈 보균자와 성관계를 갖고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 이들의 면역 체계를 백신 개발에 응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에이즈 보균자들보다 면역력은 더 낮았지만 체내에 들어온 에이즈 바이러스를 훨씬 효과적으로 죽임으로써 성관계 뒤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즈에 감염된 이들의 면역 시스템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광범위하고 강하게 공격하면서도 이를 죽이는 데는 실패한 반면, 이들이 갖고 있는 T세포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세포만 정밀 조준 공격해 성공적으로 죽이는 것으로 관찰됐다. 비영리법인인 국제 에이즈 백신

계획(IAVI)이 후원하는 우간다 바이러스 연구소는 이들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10년 내에 에이즈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연구소는 케냐 나이로비의 일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에이즈 면역성을 갖고 있는 사실을 발견,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과 함께 이들의 면역 체계를 이용한 ‘DNA-MVA백신’을 개발해 현재 시험중이다. 이 백신은 지난 2월 아프리카 동부에서 임상 1기 실험을 시작했으며 현재 영국과 케냐 등지에서 임상 2기 실험을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 2003-05-20]

“직장내 차별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차별의 양상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가 밝혔다.”

직장내의 차별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차별의 양상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가 밝혔다.

노동기구가 발표한 ‘직장내 평등을 실현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노골적인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들의 경우 채용 전에 미리 검사를 실시해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이즈에 걸리면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에이즈 보균자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며 편견 없는 교육과 훈련, 직장내 차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03-05-12]

“국내에서 수혈로 인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8년만에 다시 발생해 혈액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수혈로 인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8년만에 다시 발생해 혈액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5월 뇌수술을 하면서 혈액을 공급



받은 A양(10대)이 같은 해 12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을 제공한 79명 중 20대 후반의 남성 B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성애를 한 적이 있는 B씨의 혈액은 A양 외에 C씨(70대)와 D씨(90대)에게도 제공됐고 이 중 D씨는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C씨는 검사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혈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국내의 경우 1995년까지 10건이 있을 뒤 발생하지 않았고 외국에서는 2001년까지 미국 9352명, 영국 347명, 일본 110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건원은 덧붙였다.

▶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받은 피에 대해 항원·항체효소면역기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입한 이 검사는 2, 3주일이 지나야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B씨처럼 에이즈 감염 초기인 경우 이 검사법으로는 적발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병원에서는 헌혈받은 지 일주일 이내의 신선한 피를 원하고 혈소판은 5일 이내에 수혈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것. 또 현재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헌혈할 경우 나중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보건원 권준욱(權俊郁) 방역과장은 "에이즈 감염 여부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할 수 있다"며 "감염됐는지 알아보고 헌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결과를 지금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법(NAT)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128억원을 신청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 다시 관련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2003-05-12]

옛 소련 공화국들에 에이즈 시한폭탄 경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 에이즈 시한폭탄의 폭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프랑스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생 모리스 세덱스 소재 베이유 위생연구소에서 일하는 프랑수아 아메르와 안 켈라 다운스 등 두 학자는 현재 이들 지역에 대부분 마약 주사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약 100만명이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잠복기가 끝나면 일제히 발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소련 27개국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실태를 연구중인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이러스는 성행위를 통해 더욱 널리 퍼질 것이라면서 "현재의 HIV 감염 수준으로 보면 동유럽에는 곧 대규모 에이즈 발병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공중보건체계가 붕괴한 나라에서는 수천명이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 유럽국가 중 헝가리와 폴란드는 HIV 감염률이 비교적 낮고 안정돼 있는 편이지만 HIV를 감염시키는 행동은 어디서나 만연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옛 소련 지역의 HIV 위기는 1990년대 '철의 장막'이 사라진 뒤 따라온 사회경제적 격변기에 일어났다. 이 지역의 감염률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대규모로 아편이 흘러들어오면서 치솟아 1994년 234명이던 HIV 감염자 수는 2001년에는 99천499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 기간에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HIV 감염자 수는 5만 4천명으로 7배나 늘었다. 한편 이성간 성행위로 인한 감염도 100건에서 4천621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동성애 및 양성애 행위로 인한 감염은 연간 100건 정도로 적고 안정세를 보였다.

2001년 현재 HIV 신규 감염률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라트비아에서 100만명당 250명을 넘어섰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몰다비아의 감염률은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지역에서 보고된 전체 감염자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변창하는 섹스 산업과 다른 성병의 높은 발병률로 볼 때 앞으로 동유럽의 HIV 확산에는 서유럽에서와 달리 매춘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에이즈의 확산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풍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2003. 5. 12]

에이즈 수혈 감염 막을 수 없나?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8년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헌혈 및 혈액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검사로는 에이즈 감염 초기의 헌혈자에 대해 감염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고 돈을 많이 들여 선진화된 장비
등을 도입하더라도 수혈의 안전성을 100% 확보하기는 힘
들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자가 감염사실을 모른 채, 혹은 알더라도 이를
숨기고 헌혈할 경우에도 이를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

▶ 검사로 막는데 한계 = 국내에서 헌혈자에 대해 시행하
는 에이즈 관련 검사는 효소면역검사법에 의한 항원·항
체 검사 뿐이다.

항체검사만 할 경우 감염 후 3~4주 이내 감염자인 경
우에는 가려내지 못하며 항원검사도 이보다 6일 정도 확
인기간을 단축할 뿐이다. 결국 감염 후 2~3주 이내의 헌
혈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비책이 없는 셈이다.

장비도입에만 68억원이 소요되는 핵산증폭검사(NAT)
법을 시행하더라도 감염 후 1~2주 이내인 경우는 역시
가려내지 못한다.

이번에 수혈 감염자를 발생시킨 20대 남성 B씨도 헌혈
당시에는 항원·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또 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높은 동성연애자들의 경우 헌
혈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감추고 헌혈
할 경우 제재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B씨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헌혈을 권유, 동성연애 경험
이 있으면서도 헌혈에 참여했고 헌혈에 앞서 실시하는 문
진에는 동성연애 경험이 없다고 표기, 문진이 에이즈 감염
자를 가려내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 선진 관리 방안도 필요 = 에이즈와 관련해서 완벽한
방역은 어렵더라도 수혈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 방안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핵산증폭검사(NAT)의 경우 국내
효소면역항원검사에 비해 훨씬 정밀하게 감염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미발견기도 1주일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헌혈된 피의 혈장을 1년 정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
다가 이후 헌혈자가 다시 헌혈하러 와서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혈장을 폐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외에 헌혈액의 일부를 보관, 사고가 생겼을 때 혈액
을 추적검사하고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는데 활
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국립보건원은 아같은 혈액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지난해 1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
지 못했다면서 올해 다시 예산증액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3-05-12]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3-5월)

정희원		강연철	10,000	강왕희	10,000
강미정	10,000	곽현정	60,000	권순주	10,000
강철연	100,000	김남교	10,000	김덕희	10,000
김귀선	10,000	김매자	10,000	김미애	10,000
김동욱	10,000	김법환	10,000	김석린	10,000
김미정	10,000	김성아	50,000	김순덕	10,000
김선애	10,000	김영찬	30,000	김재석	10,000
김영진	10,000	김철민	100,000	김철수	10,000
김정미	10,000	김태민	10,000	김택동	10,000
김춘화	30,000	김현숙	10,000	김혜연	10,000
김형심	10,000	나정현	10,000	노민숙	10,000
김홍우	10,000	박남후	10,000	박병규	10,000
문종태	10,000	박상원	50,000	박신희	15,000
박상건	10,000	박성민	10,000	박성춘	10,000
박성물	10,000	박승욱	10,000	박아람	10,000
박순덕	10,000	박영출	10,000	박인숙	10,000
박영복	10,000	박현경	10,000	박홍식	10,000
박정자	10,000	백현주	5,000	사복숙	10,000
백무현	30,000	서민호	10,000	손진현	10,000
서영아	10,000	신복호	10,000	심치선	100,000
송수규	10,000	오원의	100,000	원영호	50,000
안홍련	10,000	유금숙	20,000	윤성현	10,000
원유덕	10,000	이대영	10,000	이동준	10,000
여경희	10,000	이상심	10,000	이양재	10,000
이상철	10,000	이윤호	10,000	이정화	10,000
이영숙	10,000	이준해	100,000	이지섭	10,000
이조환	10,000	이해영	10,000	임채경	10,000
이혜영	10,000	정경지	10,000	정순경	10,000
정경지	10,000	정인자	110,000	조뜨보라	10,000
정인숙	10,000	차영자	20,000	천향희	10,000
주양자	10,000	최성진	10,000	최명자	10,000
최동식	10,000	최정인	10,000	한연식	20,000
최장선	10,000	함유식	30,000	허정애	10,000
한옥수	10,000	홍은숙	10,000	황정민	10,000
홍경탁	10,000	소계	1,860,000원		

단체회원
서구보건소 100,000 소계 100,000원

합계 1,960,000원